

헤-겔辨證法과 맑스辨證法과의 關係 (四)

헤-겔과 唯物辨證法-(□)

쎄-쑤링

金亨後

論理學의 最初의 發展階段에 잇서는 概念은 有의 形式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것은 概念의 最初의 規定이다. 헤-겔式 概念의 合理的 內容은 아래의 意味에 잇서서 쑤 理解할 수 있다. 말하면 우리의 認識하는 모든 것을 概念에 依하여 認識하는 것임으로 有는 論理的 概念에 잇서 우리에게 依하여 把握할 對象의 하나의 規定 或은 第一의 規定이라고 世界の 本質은 全世界와 同□으로 論理的 概念 卽 人間的 概念에 反映한다. 그러하는 限에서 認識過程은 概念의 運動이며 運動의 形式에 依한 概念運動의 代□이다. 그러나 헤-겔에게 잇서는 事情이 그와 다르다. 그에게 잇서는 概念은 實在 그것이다. 그리하여 概念이 運動하며 發展하는 限에서 概念은 現實性 그것의 運動 及 發展의 過程이다. 概念과 實在는 同一한 것이어서 同一한 對象을 □□한다. 有는 思想이며 思想은 有이다. 이 까닭에 헤-겔에 잇서는 本來, 有와 思惟의 相關의 問題는 업는 것이다. 有와 思惟 間의 矛盾은 그것이 存在하는 限에는 일은 바 思想의 自己遊戲이다. 思想 그것을 自己를 確立하며 否定하며 쑤한 排除한다. 그리하여 다시 自己를 確立한다. 或은 □言하면 思想의 運動의 矛盾的 性質은 思想 自身の 客語의 啓示 가운데 表現되는 것이다. 思想은 새로는 有의 形態를 가지고 나타나며 새로는 本質의 本質의 形態를 가지고 나타나며 或은 質或은 □의 形態를 가지고 나타난다. 이런 새는 언제든지 이러한 諸規定의 各各은 完璧한 概念의 一面的 本性 쑤을 表現하고 잇는 것에 不過한 것을 안다. 完璧한 概念에 잇서는 概念의 本性을 一層 完全히 表現하는 것으로서의 爾後의 一層高度의 規定이 必要하다. 헤-겔 論理學의 第二의 顯著한 特殊性은 그것의 本體論的 性質 가운데 잇다. 概念한 客觀的 或은 絶對的 實在性인 故로 이 概念의 運動은 實在性 그것이 眞의 運動이다.

운동에 있어서 **概念**은 眞, □, □□, 本質 等等을 産出한다. 諸 □□의 發展過程 즉 粹論理的 過程은 現實 그것의 發展過程이다. 純粹有는 純粹『無』와 結合하여서 自己의 가운데로부터 生成을 産出한다. 그런데 이번은 이 生成은 일은 바 定有를 産出한다. 말할 것도 업시 이러한 見解는 現實의 諸 關係를 □例하는 生□한 『神秘化』이다. 이 問題에 잇서는 後□에서 다시 論하여 보려한다. 이곳서 當面하는 純粹 有(즉 純粹思想)로부터 世界의 一切 多樣이 發生 할 可能性을 承認하는 것이 無로부터 世界가 發生하였다는 것을 承認하는 것과 가튼 것은 強調하는 것 뿐으로도 充分하다. 헤-겔의 見地로부터 보면 無로부터 世界의 發生은 可能的 것이다. 왜-그러나하면 그에게 잇서는 思想, 理念, **概念**, 精神이 世界의 實體가 될느로서이다. 그러치만 唯物論의 見地로부터 보면 이것은 아주 不合理하다. 世界는 思想, 純粹有로부터 發生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物質의 永遠이 存在하는 『複合□』이다. 그런데 이 物質은 運動 그 發展에 잇서 諸現像의 모든 多樣을 實在에 産出하는 것이다.